

身土不二의 企業 興農農産 土種 홍화씨  
 0 전 국 (080)064-1300  
 0 서울본부 (080)070-1300  
 \*자라산자락 홍양은 재배의 적지  
 \*홍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과 품내  
 \*대입있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 자나깨나 '돌에 생명넣기' 골몰

올해 환갑이다. 인생의 절반을 돌과 칼을 벗삼아 살았다. 전각가 현로 최규일(玄老 崔圭一, 전에는 현암(玄巖)이란 호로 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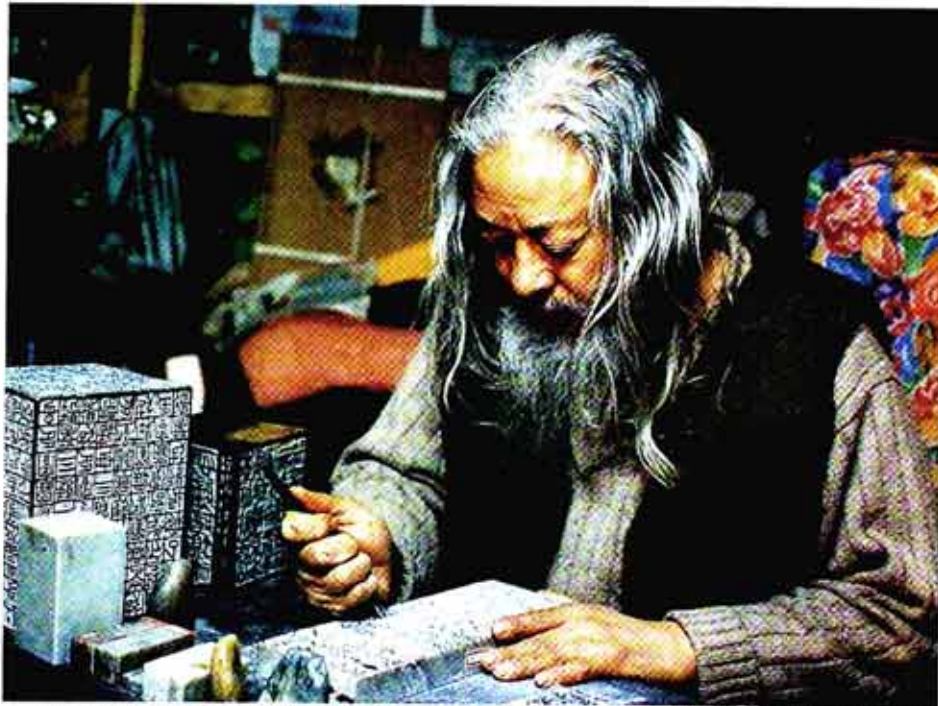
자금은 복개돼 옛 모습을 감춰지만, 기자가 정통한 변 지하 작업실을 찾았을 때 그는 대뜸 정신병을 얘기한다.

"알에 같이 병들지 않으면 안되지. 자기 알에 정신병이 걸려야 하지. 나는 지면서도 일해요. 머리 숙인 운동 새기는 것 뿐. 사람 얼굴을 봐도 전각으로 보이지."

칼 놓고 부근 다방에 있는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 요강으로 대신하고 있다. 몸치장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다 보니 머리를 길렀고 수영에도 손대지 않았다. 그런 그를 두고 남들은 기이하다. 도인이다 한다. 하지만 알에 빠진 결과일 뿐이다. 그는 스스로를 그저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작품한다고 생각하면 게을러지기 때문이다"는 것이 이유이다. 애초부터 전각을 했던 것은 아니다. 열 다섯 살부터 막일꾼에 나섰다. 마차를 고는 마부였다. 자동차의 물결에 밀려 마차가 사라지자 벽돌을 만들어 파는 건재상을 했다. 이내 실패했다. 세상이 무서워졌고 싫었다.

## 산문박의 禪

전각 30년 玄老 최규일씨



◆눈물도 거품이 된다고 했다. 사업실패가 그를 전각가로 태어나게 했다. "하루를 쉬면 알을 뒤로 간다"며 하루도 칼을 놓지 않는 전각가 최규일. 지난해 12월 구안나화당 초대전에 이어 15일부터 2월 11일까지 광주·인천 신세계미술화점 초대전을 열고 있다.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 구안나화당 초대전에 전시했던 '사물놀이' (직경 15cm.)



▲회암경의천계(華嚴經略略圖)



▶무량수불(無量壽圖)

## 10년 걸려 일도일각법 체득 1110개 돌에 금강경 장엄 "일 병에 걸려야 게으르지 않아"

여기저기 떠돌다 어느 절간을 찾았다. 전각가 최규일도 다시 태어나게 한 남해 화방사. 폐사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기울어진 전각과 못지않은 잡초 사이 유독 절 마당에 널려 있는 주춧돌과 기와장이 눈에 띄었다. '알에 채이도록 널려 있지만 돌만큼 오래도록 남은 것은 없다. 내 흔적을 물어 새기면 먼 훗날에도 누군가 나를 볼 수 있겠지.'

"그 생각에 녹아들었어. 그리고 달려들었어." 스승도 없었다. 오로지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매달렸다. 눈물도 거품이 된다고 했듯이, 삶과 실패가 주는 힘이였다. 일도일각법(一도一刻法)을 체득하는 데 꼬박 10년이 걸렸다. 한 칼에 한 획을 그었다. "오드득", 돌 떨어져나가는 소리가 머리맡을 숙구시켜 줬다. 그의 일도일각은 기존의 전각처럼 칼로 다듬은 데 끄러운 선이 아닌, 돌이 떨어져나간 선에다 조영을 심는 것이다. 선과 선 사이엔 불결이 있고 선이 솟았다. 한 획 한 획이 불결을 들고 산을 넘는다.

물고기와 달과 개구리가 돌 속에서 노닌다. 사물놀이하는 장면도 펼쳐진다. 오랜 드로잉 습관이 형상의 지체로움을 뒷받침하고 있다. 누드크로키와 전각을 함께 펼쳐놓는 과정도 미다하지 않는다.

기존 전각계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게 어디 선이야. 쥐가 뜯어먹은 자국이지." "왜 칼을 부쳐서 쓰지 않느냐." 칼을 쓰는 것도 붓과 같이 하라는 이론을 강

조하는 질타였다. 그의 생각은 달랐다. "칼은 칼, 붓은 붓이다. 예술가의 병은 때려리듬이다." "이론도 몸으로 확인할 때 비로소 나의 것이 된다." 이론이라고 해서 모두 추종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의 이론은 몸이다. "하루를 쉬면 알을 뒤로 간다." 예리한 칼을 쓰는 일은 더욱 그렇다. "나는 칼을 잡지 않아요. 매일 쓰니 무뎠지 않는 것이죠."

아무튼 전각계에 한바탕 바람을 불고 왔고, 아직도 바람이 일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 곁에 몰리고 있다. 85년 첫 전시회 이래 개인전만 열서번에 이른다. 최근에는 프랑스 구안나화당 초대전도 열었다. 이 전시회에 사교계의 거물이면서도 종재로 얼굴을 내밀지 않는 사별 항주의 사장까지 참석했다 해서 화제가 됐다. 88년에는 독일 공영TV가 그의 작품세계를 소개했다. 외국 사람들이 먼저 그의 작품을 눈길을 보낸 것이다. 1, 2월중에는 광주(1. 15~29)와 인천(1. 28~2. 11)의 신세계미술화점 초대전이 있다. 지난 연말에는 청에 못이겨 '성불합시다' '산빛 보며 눈을 씻네'라는 이름을 붙여 달력에 아예 그의 전각 작품을 담았다.

그의 손길이 닿으면 돌은 더이상 차디찬 존재가 아니다. 우리를 가슴에 새긴 뜨거움으로 다가온다. 그렇다. 그의 전각은 글자를 파는 일이 아니다. 그에게 전각은 파는 것이 아니고 새기는 일이다. "금강경 사구계를 읽으면 뼈가 저려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읽지 않고 실천은 안해요. 사구계의 일성만 알아도 세상이 이토록 험하지는 않을텐데..." 유독 경전을 많이 새긴다. 금강경 전각에 꼬박 5년의 시간과 혼을 담았다. 사방 6cm의 1천1백10개의 옥



◇전각가 누드크로키. 탄탄한 드로잉 실력이 전각의 조형미를 뒷받침하고 있다.

돌을 금강경으로 장엄했다. 전각된 밀면만 사방 6cm. 부처님이 설한 금구(金句)가 알(峯)을 하는 일대 장관, 법열(法悅)이 넘쳐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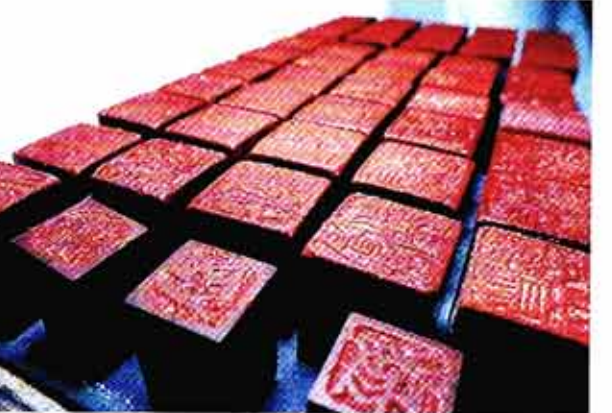
내친 김에 지난해 1월부터 6개월 동안은 반야심경을 10벌 각경(刻經)했다. 천수경, 화엄경 그리고 두보, 이백, 정약옹, 허난설헌의 시, 우리의 정신을 밝혀주는 글들도 새겼다. 생살을 지며내듯 돌을 깎아내며 사람들에게 새겨주고픈 마음도 담은 것이다.

이즈음엔 한산시(寒山詩)를 새긴다. 한산시가 바로 금강경 사구제로 읽히기 때문이다.

人間寒山道 懸山路不通 夏天水未涸 日出露凝  
 以我非由由 與君心不同 君心若似我 還

得到其中  
 사람이 있어 한산길을 묻는구나,  
 그러나 한산에는 길이 통하지 않네.  
 한여름에도 얼음이 녹지 않고  
 옛는 때를라도 인계만 자욱하네.  
 나 같으면 어떻게 갈 수 있지만  
 내마음 그대 마음 같지가 않네.  
 만일 그대 마음이 내 마음과 같다면  
 어느덧 그 산 속에 이르리라.  
 (어떤 사람이 인생의 길 혹은 진상(眞性)에 이르는 길을 묻는다. 하지만 그것은 대답해 줄 수도 없고 또 한 답도 없다. 그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마음만 같다면야 답해 주지 않아도 그 길에 도달할 수 있으리...김달진)

글=정성운 기자(jsung@buddho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opia.com)



▼사방 6cm, 1110개의 돌에 새긴 금강경.



◇법상해인도(法性海印圖)



◇'금시조를 탄 문수동자'. 직지서 소장. 1760년경.

## 초월적 존재... 상서로움 상징

불화와 평화비교 33장면 24

### 상상동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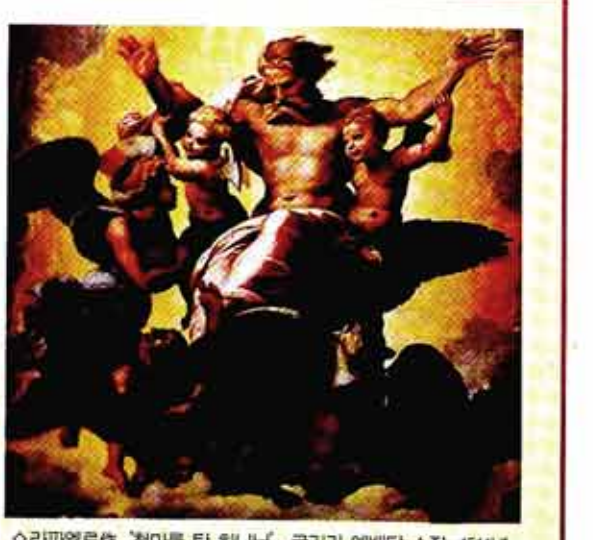
용 극락조 금시조 봉황 천마 해태 현무...  
 이같은 동물들은 실재에는 없는 상상속의 동물들이다. 이들은 두가지 이상 여러 동물의 기능이 합쳐진 뛰어난 능력을 지닌 초월적인 존재로 불화나 평화에 그려지고 있다.  
 대표적인 상상동물인 용은 나뉘는 머리에 사슴의 뿔, 토끼 눈, 암소의 귀, 뱀의 목, 개구리 배, 잉어의 비늘, 호랑이의 발바닥으로 이뤄졌으며 모습을 마음대로

로 바꿀 수 있고,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며 비와 바람을 일으킨다고 여겨져 왔다.  
 극락조는 사람의 두상과 새의 몸, 용의 꼬리가 달린 아름다운 새로 극락에 깃들인다고 하며 봉황은 닭의 부리, 재비의 턱, 뱀의 목, 거북의 등, 용의 무늬, 물고기의 꼬리 모양을 갖춘 신성한 새로 상서로움을 상징한다.

왼쪽 그림은 직지서 벽화 '금시조를 탄 문수동자'이다. 금시조는 인도신화에 나오는 새로 '가루라'라고 하는데 물 전체가 금색으로 되어 있으며 양쪽 날개를 펼치면 33만리나 되고 용을 잡아먹고 사는 용맹스러운 새라고 한다.

오른쪽 그림은 굴리리 예배당에 소장되어 있는 라파엘로 작의 '천마를 탄 하나님'이다. 천마는 말에다 새들처럼 날개를 달아주어 더욱 빠르게 날아다닐 수 있게 한 상상속의 동물이다.

학림(예천 법화암 주지)



◇라파엘로작 '천마를 탄 하나님'. 굴리리 예배당 소장. 1511년.